

건강논단

# 職場에서의 健康診斷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理事 朴 弼 洙

人間 個人的 것이므로 당연히 살아있는人間 自身이 管理하지 않으면 안된다. 集團으로서의 企業의 健康은 그 集團을 構成하는 個人的 健康이 없으면 存在하지 않으므로 個人的 健康維持와 增進이 必要 要件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企業의 保健管理者라 하더라도 個人的 것이인 健康을 다른 사람이 어디까지 管理할 수가 있을 것인가 企業이 그 目的을 能率있게 達成하는데 重要한 것은 勤勞者가 健康하게 業務를 遂行한다는 것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勤勞者의 健康管理가 必要하게 된다. 그러나 勤勞者 個人的 健康은 各自的 것이므로 企業의 管理者가 할 수 있는 것은 勤勞者가 행하는 健康自己管理를 도와주는 것일 것이다. 健康의 自己管理는 먼저 自己의 健康狀態의 正確한 把握에서 始作되며 이것이 職場에서의 定期健康診斷이다. 機械는 故障이 생기면 즉시 變調되거나 停止된다. 그러나 人間の 身體는 精密하기는 하나 機械와는 달라 스스로 回復하려고 하고 多少의 異常이 있더라도 그것이 決定的인 것이 되지 않는 한 즉시 症狀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症狀이 나왔을 때는 이미 어느 程度 進行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따라서 早期에 發見하는 定期健康診斷은 自己健康管理에는 必要 不可缺의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 制度가 아직도 企業內에 定着되지 않고 있는 理由는 어디 있을까, 다시한번 健康診斷의 뜻을 되새기면서 實效를 거두었으면 하고 적어본다.

## 2. 健康診斷의 目的

定期健康診斷의 目的은 自己管理에 必要한 現狀 把握이며 주로 自覺症狀이 없는 가운데 病變의 早期發見, 早期治療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異常을 認定할 수 없다고 하는 報告가 있어도 그것은 健康을 保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定期健康診斷으로는 時間的·經濟的으로 制限이 있으며 全身의 구석 구석까지 檢診한다는 것은 不可能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健康診斷은 疾病을 發見

## 1. 序 言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健康이 있으며 健康은 살고 있는 人間の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사람은 自然의 環境에 의해 살아가며 自己의 生命獲得에 代價를 支拂하지 않기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健康이 나빠졌을 때 비로소 自己의 삶에 關心을 가지며 健康을 意識하게 된다. 그렇다면 健康은 누가 管理하는 것인가, 健康은 살아있는

하는 手段과 같이 認識되고 있으나 그것은 극히 一部の 目的이며, 더 重要的 여러가지의 目的이 있다. 또한 健康診斷이 保健管理의 中心이며, 먼저 健康診斷을 實施하는 것이 先決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다. 健康診斷만 實施하여 保健管理가 滿足하게 遂行되고 있는 것과 같은 錯覺을 갖는 事業場도 있다. 이와같은 잘못된 認識은 하루 빨리 해소되어야만 한다. 産業安全保健法에서는 健康診斷을 規定한 第4章 保健管理의 앞에 健康障害를 豫防하기 위한 措置, 機械 및 有害物에 관한 規制, 保健教育까지를 포함한 勤勞者의 就業을 함에 있어서의 措置 등의 章을 先行시켰으며 第4章 속에서도 作業環境 등의 測定에 대한 條文이 健康診斷의 實施를 정한 條文 앞에 두고 있다. 이와같이 健康診斷은 綜合的인 保健管理속에서 하나의 役割을 擔當하는 것이며, 모든 保健管理活動 즉 環境管理·健康管理·作業管理·保健教育 등과 有機的인 연결이 必要하다. 이와같이 생각할 때 健康管理의 順序는 有害因子의 排除-영향으로부터의 防護-個人的인 素因에 대한 配慮가 되어야 할 것이다.

#### (1) 勤勞者健康狀態의 把握

企業에서는 集團으로서의 健康狀態把握이 必要하다. 定期健康診斷의 履行과 그 結果의 把握은 물론 勤勞者 個人的인 性格, 취미, 습관, 家庭生活 등 될 수 있는 한 把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自己健康管理의 動機 부여

個人的인 健康은 自己管理하는 것이 本來의 취지이므로 勤勞者 個人的인 스스로의 意志로 바른 自己管理를 할 수 있도록 動機를 부여하는 것이 重要하다. 定期健康診斷의 뜻 異常 所見이 있을 때, 精密檢査의 必要性 등을 잘 理解시키어 受診의 機會를 주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健康의 異常은 個人的인 秘密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알아낸 異常을 그대로 勞務管理에 反映시키면 勤勞者의 健康狀態把握에 障害가 되므로 注意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3) 勤勞者 健康增進의 方案

살아있는 人間이 機械와 다른 特徵은 쉬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과, 使用하면 使用할수록 發達하는 것이라 하겠다. 作業中에 생기는 스트레스의 解消, 身體的인 疲勞의 休息, 단련에 의한 健康增進 등을 目的으로 하는 行사가 計劃的으로 進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3. 健康診斷과 保健管理者의 役割

産業安全保健法 第12條 第2項에서 安全保健管理責任者의 總括 管理할 業務의 5號에 勤勞者의 健康診斷 등 健康管理에 관한 事項이 規定되어 있으며, 한편 第32條에서 健康診斷은 醫師에게서 받도록 하고 있다. 健康診斷을 直接 擔當하는 것은 醫師를 診斷責任者로 하는 醫療팀이나 實施主體는 事業主이며, 安全保健管理責任者가 選任되어 있는 事業場에서는 그 者가 實施責任을 져야만 한다. 한편 保健管理者는 第14條에 의거 保健에 관한 技術的인 事項을 管理하도록 하고 있어 最終的인 實施責任은 別途로 하더라도 그 實務를 擔當하는 것이 義務化되고 있다. 당연히 健康診斷에 관한 實務도 擔當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健康診斷 對象의 파악, 實施計劃, 準備, 連絡, 結果 通知, 事後措置 등은 保健管理者의 所管이 되는 것이다.

#### (1) 健康診斷의 計劃

健康診斷은 하나의 調査活動이며, 作業環境測定과 같이 거기에서 얻어진 情報를 活用하여 무엇인가의 對策이 세워져 비로소 保健管理活動이 되는 것이다. 요컨대 對策의 前段階로서 實施되는 것이지 實施만으로 獨立하여 完成하는 활동은 아니다. 保健管理에 한정되지 않고 大部分의 業務는 무엇인가의 問題라고 하는 動機가 있어 實施되는 것이므로 그 動機를 檢討한 結果, 目的을 明確하게 하고 調査가 이루어지며, 그 調査結果를 判斷한 후 對策 措置가 實行된다고 하는 一貫된 흐름이 있어야지 目的도 없고, 對策 措置를 前提로 하지 않는 調査는 있을 수 없다.

이것은 健康診斷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되므로 健康診斷計劃을 樹立함에 있어서는 每年 實施한다는 반복적인 생각을 버리고 充分한 檢討를 한 다음 目的을 分明히 하고 對策 措置까지를 미리 생각하여 두어야만 한다. 計劃의 原則은 事業場의 實態(作業環境)를 감안하여 무엇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대하여 언제 어디서 實施하고 그 結果를 어떻게 利用하고자 하는가를 充分히 檢討하는 것이며, 더우기 計劃에서 實施 活用까지의 一貫성이 重要하다.

#### (2) 實施內容의 檢討

法에 의거 健康診斷項目이 정해져 있으나 많다고 좋은것은 아니다. 目的·對象·精度·活用能力 등을 생각하여 法定 以外の 것에 대해서는 充分한 檢討를 하지 않으면 能率的인 것이 되지 못한다.

#### (3) 健康診斷結果의 活用

健康診斷의 結果에 의한 措置를 法에서 정하고 있는것은 第32條 第4項이다. 이것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의 目的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重要的인 것은 健康에 異常이 있을 때 뿐만 아니라 健康管理를 위하여라고 規定하고 있어 積極的인 豫防이라는 姿勢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도 健康診斷은 繼續的인 健康狀態의 觀察, 健康에 영향을 주는 因子의 發見, 健康에 대한 影響의 觀察이 必要하다는 것으로서 단지 機械的으로 檢査를 實施하고 疾病을 發見하는데 限되고 있다는 것은 法の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칫 健康診斷을 實施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異常者에 대한 要治療·要注意라고 하는 指示는 하나 그 以外の 措置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健康診斷은 健康狀態에 대한 調査이며, 調査를 한 以上은 그 結果를 活用하지 않으면 目的을 達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活用은 뒷정리가 아니며 積極的인 豫防活動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 4. 맺는 말

健康管理라는 것을 企業의 立場에서 생각해 보면 企業에는 勞務管理와 關連하여 勤勞者의 安全과 健康을 確保할 義務가 있으나 이것은 두말할 나위없이 企業의 圓滑한 運營에 關係되는 것이다. 勤勞者가 健康에 障害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있는 勞動力을 充分히 活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疾病, 傷害 등의 回復措置도 勿論 重要하지만 豫防 早期發見에 더 力點을 두어야만 한다. 일련의 健康管理事業이 企業의 運營上 必要不可缺한 것인 以上 企業은 이에 積極的으로 對處해야 하며, 企業의 全組織을 통하여 努力할 때만이 所期의 結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企業이 勤勞者의 健康管理에 積極性을 傾注한다 하더라도 勤勞者 本人의 意識이 낮으면 效果는 줄어든다. 健康管理을 위한 여러가지의 事業도 參加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如何에 따라 結果가 크게 左右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結局 通常的인 方法으로는 企業은 條件을 整備하는데까지는 可能하나 그 以上은 限界가 있기 마련이다. 이와같은 限界를 벗어나기 위해 勤勞者의 健康을 위한 情報를 모든 시스템에 의해 수집 보관하여 活用하도록 하고 이 管理情報가 保健教育, 健康相談의 基礎資料가 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勤勞者의 健康을 지키기 위한 健康管理·環境管理·作業管理는 이제까지와 같은 消極的인 立場에서 脫皮하여 作業에서 생기는 健康障害를 豫知하고 日常作業의 改善에 參與함과 同時에 健康은 自己가 지킨다고 하는 自覺을 啓發하도록 하는 것이 保健管理者의 當面課題임을 再認識하고 이제부터의 健康管理은 豫防的인 健康管理에서 豫測的인 健康管理를 積極的으로 推進하자는 것이다.